

'청순한 마음' 꽃말의 멸종위기 2급 '순채'...강릉 순포습지 돌아왔다

news1.kr/articles/5433450

2024년 5월 31일

홈 > 전국 > 강원



강릉 순포습지에 최근 모습을 드러낸 멸종야생생물 2급 순채.(강릉시 제공) 2024.5.31/뉴스1

강원 강릉시는 지난주부터 순포습지 내 순채 서식지에서 순채가 개화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순채는 멸종위기야생생물2급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재자연화된 순포습지에 복원사업의 깃대종인 순채의 서식지를 조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순채(*Brasenia schreberi*)는 수련목 어항마름과 순채속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수생식물로 지름 2cm 홍자색꽃을 5월 중순~8월에 개화하며 수심 1m 내외에서 서식한다. 꽃말은 '청순한 마음'이다.

순포마을의 지명 유래와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순포'는 마을에 순채(순나물)가 많이 자라서 붙여진 이름으로 옛날 흥년이 들었을 때 이곳에서 나는 순채를 뜯어 먹으며 식량을 대신했다고 전해온다.



강릉 순포습지에 최근 모습을 드러낸 멸종야생생물 2급 순채.(강릉시 제공) 2024.5.31/
뉴스1

순채는 멸종위기야생생물2급으로 지정돼 그 서식지의 관리와 보전은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는 순채의 서식지 관리를 더욱 강화와 다양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생물 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습지의 대중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순포습지의 순채 개화는 그동안의 관리 노력의 결실”이라며 “순채를 포함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확대하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 순포습지에 최근 모습을 드러낸 멸종야생생물 2급 순채.(강릉시 제공) 2024.5.31/
뉴스1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